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Heritage  
Switzerland

100년전 세계문화기행 XXVII

단 한 줄로 백 마디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다. 100년 전 당시 여행자들과 선교사들이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을 마주할 때면 사진 속에 기록된 사람과 풍경, 유적들이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달은 아름다운 풍광 하면 우리들의 머리 속에 금방 떠오르는 스위스로 행복한 시간 여행을 떠난다. 하얀 눈을 머리에 인 알프스산맥, 오들송, 푸르른 잔디와 풀을 뜯는 젖소 때, 맑은 호수와 산간 마을 등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하나마 동경의 대상이었던, 언제가는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던 스위스를 100년 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알프스에서 마주친 천상의 아름다운 풍광  
Switzerland**

유럽의 여러 지역을 두루 여행하다가 일단 스위스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이 좁아진다. 높은 산들이 우뚝 솟아 하늘을 가린 탓이지만, 조각난 스위스의 하늘에서 오히려 선별된 천상의 신비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스위스와 알프스. 문득 감았던 눈을 뜨면 차창의 풍경은 천상의 선물인 양 경이롭다. 가파른 산비탈과 준엄한 낭떠러지에 가까스로 기대 있는 나무들, 하늘 아래 있어야 할 산봉우리들이 흰 눈을 품어 안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다. 이런 알프스를 바라보며 시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리라.**

폭포수가 우리를 삼킬 듯 쏟아진다  
바위가 우리를 내려칠 듯이 구른다  
그러면 벌써 멀리서 새들이 날아온다  
세찬 날개 휘저으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저 아래에는 대지가 놓여있고  
세월 모르는 호수들 속에  
과일들이 끝없이 모습을 비추고 있다  
- ‘여행의 노래’중에서

‘쏟아짐’과 ‘솟구침’의 역행동작, 물과 암벽이 자아내는 위험과 공포감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날아오는 새. 이 날짐승의 조감도처럼 알프스의 산정에서 우리의 눈길을 저 아래 땅과 호수들을 향해 던져보자. 아, 이 수직의 미학은 다시 물과 바위, 액체와 고체의 상반된 힘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적막을 이룬다. 그곳에서 세상은 거울의 반사형상이 되어 알프스라는 대자연과 만난다. 아름다운 폭포들, 암벽 위에 자리한 숲과 나무, 아담하고 산뜻한 주택과 풍요로운 전원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인간의 신비로운 교합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몽블랑과 알프스 루트 원래 ‘최고 높은 산’이란 뜻의 알프스는 스위스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여섯 나라에 걸쳐 있다. 그것은 다시 멀리 남쪽 피레네 산맥과 북쪽 스칸디나비아 산악지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넓은 의미로 유럽 문화의 한마당이라 할 수 있다. **평균 해발고도가 2500m, 상부에는 빙하계가 발달되어 있고 침식당한 침봉군, 초원과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지질학상으로는 지구의 제3기 조산 운동에 의한 습곡 산맥이라고 설명된다.**

지대가 높은 탓에 애초에는 유럽의 남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로마시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생 베른하르(고봉 2472m, 소봉 2188m)는 갈리아 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통로로 쓰였다.

13세기부터는 영국으로부터 이탈리아까지 통하는 국제적인 중심 루트가 되었다. 1800년 5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나폴레옹이 마렝고 전투에 나설 3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길을 넘던 당시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이탈리아의 몽스니, 스위스-이탈리아의 생 블롱, 그리고 생 고타르 등의 긴 터널을 통해 국제 열차가 다니고 있다. 말 그대로 ‘흰 산’이라는 뜻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몬테 비앙코, 4807m)에도 터널이 뚫려 지역의 산업 발달에 큰 몫을 해오고 있다.

스위스인의 자연도전 의식 곳곳에 뚫린 터널과 산길철로를 보면서, 자연에 대한 도전에 몸을 아끼지 않은 스위스인의 정기를 엿볼 수 있다. 스위스 중부로 향하는 고트하르트 철로로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나선형 터널에서 스위스인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암슈텍 주변의 철교는 높은 산악지대에 설치된 데다가 길이 너무 굽어서 철도부설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무수한 난관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하지만 매사에 치밀하게 대처하는 알프스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찔한 절벽 위에 철교를 가뿐히 건설했다.

그런데 스위스 산악지대에 쌓인 눈은 겨울이면 산악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스위스인들은 이

그러나 높은 산골짜기에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마냥 아름다운 경지만을 떠날 수만도 없으리라. 곳곳에 애절한 이야기들이 서려있다. 1800년 초 어느 산골마을. 가족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혹시 오늘 밤 중에 위험스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레와 함께 눈사태가 마을을 덮쳤다. 온 식구가 눈 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초인적 힘을 발휘하여 눈을 헤치고 나온 아버지는 가족을 찾았다.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의 신음소리였다. 곧이어 팔이 부러져 누워있는 아이를 구출하였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머지 두 아이는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오늘도 그치지 않는 아프리카 대평원의 야수들의 울부짖음 같은 눈사태 소리 속에서도 스위스인은 “삶 속에 죽음이 있다”는 처절한 각오로 오늘을 지겨가고 있다.



스위스 중부에 자리한 루체른의 주도 루체른 전경. 옆의 호수는 도시의 상징인 피어발트슈테터이며,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목판화가 있는 카펠 교도 보인다.



알프스 지역 주민들이 얼음판에서 썰링을 즐기고 있다.



아찔한 절벽에 세워진 고트하르트 철교. 산악 지대인데다가 길이 굽어서 철도부설에 난관이 많았지만, 매사에 치밀하고 도전적인 스위스 알프스 지역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에 수많은 철교를 세웠다. 100여 년 전의 공법으로 건설된 철교는 당시 사람들의 노역에 대해 경이감이 들게 한다.



가을철 수확기의 모습으로 포도압착기로 진액을 짜고 있다. 스위스는 맑은 호수와 풍부한 햇볕으로 질 좋은 포도와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산비탈에 있는 목초지에서 거둔 건초를 나르는 남녀의 모습. 목초를 말려 가족에게 먹이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알프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목동의 오두막. 목동이 양을 치다가 험한 날씨와 눈사태 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시숙소다.

### Australia Information

#### >>기본 정보

**국명** 스위스연방(The Swiss Confederation)

**수도** 베른(인구 13만 명: 인근 지역 포함 시 30만 명)

**면적** 4만1293km<sup>2</sup> (한반도의 약 5분의 1)

**인구** 750만 명(외국인 약 150만 명 포함)

**언어**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 (0.5%), 기타(9%)

**종교** 가톨릭(41.8%), 개신교(35.3%), 기타(22.9%)

**기후** 전체적으로 온화한 사계절 기후다. 다만, 지역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크다. 알프스 설산의 냉대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까지 작은 면적 안에 다양한 기후가 뒤섞여 있다. 표고에 따라 기온 차이가 큰 것도 특징이다. 등산열차를 타고 해발 3000m 이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여름에도 눈과 얼음의 세계와 만난다. 일교차도 심해 계절, 장소에 상관없이 체온 조절이 가능한 여벌의 옷이 필수다. 봄은 휴양하기에 좋으며, 여름철은 만년설의 상태가 좋은 시기로 등산하기에 적합하다.

>>비자 및 가는 방법 대한항공이 인천-취리히 직항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다. 스위스항공 등 외국 국적 항공사들이 오사카나 유럽 지역 등을 경유해 취리히에 닿는다. 한국인은 3개월 이내 체류일 경우 비자가 필요 없다.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다. 3월 마지막 일요일에서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의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는 시차가 7시간이다.

>>전압 220V, 50Hz. 플러그는 2핀 방식과 3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현지교통 대부분의 열차와 버스는 예약이 필요 없다. 혼잡한 열차나 특별열차 등 시간표에 R 또는 RR 표시가 된 경우만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은 대략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받는다. 여행사, 철도역, 레일서비스(0900-300-300)에서 서비스를 대행한다. 역에 가면 흰색과 노란색의 시간표를 보 수 있는데 흰색은 도착, 노란색은 출발 시간표이다. 역에는 가기 다른 목적지에 가

시간표를 볼 수 있는데 왼쪽은 도착, 오른쪽은 출발 시간표이다. 열차는 각기 다른 목적지에 가는 객차가 연결돼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도중에 분리되어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검표하는 차장에게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쇼핑 도시마다 중세풍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작은 상점들이 많다. 지역에 따라 시장이 열리는 요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 아울렛인 폭스타운은 밀라노에서 가까운 멘드리지오점이 가장 유명하다. 구찌, 프라다 등 10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25~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초콜릿, 치즈, 시계, 뮤직박스, 군용칼 등 스위스 특산품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선물용으로 좋다.

>>레스토랑 고급요리와 세심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일류 레스토랑에서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서민적인 곳까지 여러 형태의 레스토랑이 갖추어져 있다. 치즈 전문점, 요들송 쇼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 길드하우스, 고성 등 유서 깊은 건축물의 레스토랑 등도 산재한다. 레만호, 루체른호 등 호수에 정박된 배의 레스토랑이나 유람선을 이용한 디너 크루즈도 즐길 수 있다. 음식값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팁을 줄 필요는 없다.

#### >>주의 사항

- 스위스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도난 및 날치기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기차가 역에서 잠시 정차 중일 때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정차 중 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융프라우 등 산악지역 여행 시에는 현지 가이드의 조언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고, 무리한 산행이나 물놀이 등을 가급적 피한다.
- 등산열차 및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기압차 및 기온차가 크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융프라우 등에 갈 경우 여름에도 추운 날씨에 대비한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곳에 따라서는 유료인 경우도 있다. 남성용은 'Messieurs' 또는 'Herren', 여성용은 'Dames' 또는 'Damen'이라 표시되어 있다.

[▲ top](#)